'0%대 기준금리 + 양적완화'…환율·인플레는?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장세희 기자] '0%대 기준금리, 그리고 무제한 유동성 공급'

한국은행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길로 발걸음을 내디디며 그 효과와 부작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은은 26일 3개월간 금융권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고, 열흘 전에는 기준금리를 0.75%로 대폭 인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실물ㆍ금융 복합타격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긴 하지만,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정책인 만큼 평가도 제각각이다. 전문가들은 0%대 기준금리와 한국형 양적완화가 후유증을 유발할 수는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현재로선 경제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①환율상승=**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의 양적완화는 대개 통화가치 하락(환율 상승)을 유발한다. 미국의 경우 양적완화를 해도 전 세계로 달러가 퍼져나가기 때문에 부작용이 크지 않은 반면, 한국과 같은 국가들은 통화가 대부분 국내에 머무르며 통화가치가 하락한다. 그럼에도 한은이 공격적 돈풀기에 나선 배경엔 지난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체결한 한미 통화스와프가 있었다. 1차 달러 안전판을 확보했기 때문에 환율상승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환율 급등으로 수출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면 미국 재무부가 환율조작국 문제를 들먹일 수 있지만, 전 세계가 돈을 푸는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도 당분간은 자유롭다.

**②인플레이션=**통화가치 급락이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일본과 마찬가지로 금리를 제로(0)로 내리고, 돈을 아무리 풀어도 돈이 돌지 않는 이른바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다만 불행 중 다행으로 현재는 저물가로 인한 경기침체(Recession)가 우려되고 있어 인플레로 인한 부작용은 다음 문제다. 인플레보다는 오히려 기술적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모든 사람들이 현금을 찾아 보유하려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적 디플레이션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③부동산 버블=**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한국의 자산시장도 문제다.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면 정부 규제가 미치지 않는 9억원 이하 아파트가격이 들썩일 수 있다. 버블이 커지는 동안 금융권 부실도 커진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기관 수익이 악화하면 규제완화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융권 부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 한은 관계자는 "과도한 부채가 쌓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은 사실 두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④급격한 자본유출=**

시중에 풀렸던 자금들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부작용이다. 금융위기 이후인 2013년 벤 버냉키 전 Fed 의장이 재정지출을 축소하겠다고 발언하자 신흥국의 통화가치와 채권ㆍ주식은 '트리플 약세'를 보였다. 배를 띄울 때 여러 방향에서 물을 채웠다가 나중에 물을 빼내는 것을 상상하면 이해가 쉽다. 동시에 돈을 풀어 자산가격을 부풀려놨지만 나중에 어느 한 쪽(선진국)에서 물을 빼기 시작하면 다른쪽(신흥국)에 있던 돈이 빠져나가며 시장을 뒤흔드는 논리다.

**⑤중앙은행 신뢰성 타격=**'중앙은행이 쉬운 길로만 가려 한다'는 지적도 생각해 볼 부분이다. 베트남전(1960~1975년) 당시 Fed가 달러를 찍어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세계 중앙은행 시스템이 발전했다. 중앙은행 시스템이 무너지며 신뢰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결국 유동성이 막혀있는 곳에 직접적으로 손을 대는 전략을 써야 한다"며 "양적질적완화(QQE)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요즘 같은 초저금리시대, 저축은행은 왜 금리를 더 줄까  
최근 0.1~0.3%p씩 인상  
회사채 발행시장 얼어붙어 중소기업 대출 몰리기 때문  
자금 확충 위해 금리 올린 것  
시중은행 금리는 0%대로 하락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시중은행 입출금 계좌에 목돈을 쌓아뒀던 회사원 이모(39)씨는 지난 31일 우연히 저축은행중앙회 애플리케이션 'SB톡톡'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대부분 1%대였는데, 2%대가 수두룩해진 것이다. 이씨는 서둘러 3000만원으로 연 2.2%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남은 돈도 다른 저축은행에 예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씨는 "기준금리가 0%대라고 해서 정기예금은 거의 포기한 상태였는데, 뜻밖에도 저축은행 금리가 올라 횡재한 기분"이라고 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0.75%로 인하된 지 2주째. 시중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도 빠르게 0%대로 수렴하는 가운데 저축은행들은 오히려 하나둘 예금금리를 올리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무슨 이유로 '거꾸로 행보'를 보이고 있을까.  
  
**◇저축은행 금리는 역주행, 왜?**국내 1위 저축은행인 SBI저축은행은 지난 31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0.3%포인트 인상한 2.0%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가입하면 연 2.1% 금리를 준다. OK저축은행도 'OK안심정기예금' 금리를 기존 연 1.9%에서 2.1%로 0.2%포인트 높였다. 이 밖에 아주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2.2%, 바로저축은행의 SB톡톡 정기예금 금리가 2.2%로 상향 조정되는 등 상당수 저축은행이 발 빠르게 정기예금 금리를 2% 위로 조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취합하는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사이트에는 1일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2% 이상인 저축은행 상품이 70여 개나 된다.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정기예금 금리 상승은 코로나 사태로 회사채 발행 시장이 얼어붙은 것과 연관이 있다. 시중은행 대출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평상시 캐피털사를 통해 대출을 많이 받는다. 캐피털사들은 자기자금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대출 수요를 충당한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회사채 발행 금리가 뛰고 사실상 발행이 불가능한 지경이 됐다.  
  
캐피털사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중소기업 대출 수요가 저축은행으로 일제히 몰렸고, 대출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저축은행들이 예금을 최대한 끌어모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대출 문의가 많아 대출 수요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금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며 "금리를 0.1%포인트만 높여도 돈이 확 들어오기 때문에 저축은행들이 일제히 예금 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0%대로**반면 시중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는 0%대로 낮아지고 있다. 하나은행은 1일부로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0.2~0.5%포인트 인하한다. '주거래정기예금'의 기본금리가 1.25%에서 0.75%로, '고단위플러스정기예금'은 1.2%에서 0.7%로 각각 내려간다. '급여하나월복리적금'은 만기 1년 기준으로 기본금리가 1.5%에서 1.3%로 인하된다.  
KB국민은행도 지난 25일부터 수신상품 금리를 잇달아 조정했다. '국민수퍼정기예금'의 금리를 계약 기간에 따라 0.15%포인트 또는 0.05%포인트 내렸고, 27일에는 'KB X BTS 적금Ⅱ' 금리, 30일에는 'KB 스타 정기예금'과 'KB우대저축통장' 'KB우대기업통장' 금리를 각각 인하했다. NH농협은행도 정기예금인 '큰만족실세예금'의 기본금리를 기존 1.1%에서 0.75%로, 'NH주거래우대적금'의 금리를 만기 1년 기준으로 1.25%에서 0.85%로 각각 내렸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20년 2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은행권 저축성 수신금리는 0.11%포인트 내린 1.43%로 2016년 10월(1.4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됐다. 0.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가 반영된 3월 집계치는 이보다 훨씬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1/2020040105643.html>

### 기준금리 내렸는데 주담대 금리는 ↑…왜?(종합)

####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소폭 올라 금리 기준되는 금융채 금리 올라간 영향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주요 은행들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예금금리는 내려갔으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는 금융채 장기물 금리가 올라간 영향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주 초 기준 신한ㆍKB국민ㆍ우리ㆍ하나은행 등 4대 은행 5년 고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주 보다 0.13~0.16%포인트씩 올랐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2.72~3.73%로 0.16%포인트 상향 적용됐다. 하나은행(2.63~3.93%)과 우리은행(2.59~3.59%)도 각각 0.13%포인트, 0.16%포인트 올랐다. 국민은행의 해당 대출금리는 2.44~3.94%였다. 은행권의 혼합형 포함 고정금리형 대출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48.0%다.

지난 16일 한은이 빅컷(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해 기준금리가 0.75%까지 낮춰졌으나 시중은행 대출금리에는 일절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속사정은 있다. 은행 대출금리는 일 단위로 고시되는 금융채와 월 단위로 바뀌는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금리로 삼는다. 여기에 고객 신용도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는 방식으로 책정된다. 주택담보대출은 가입 5년 간 고정 이후 변동금리로 변하는 고정형(혼합형) 상품과 가입 후 6개월 단위로 금리가 바뀌는 변동형으로 나뉜다.

이 중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한 것인데 이는 기준이 되는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가 최근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전 거래일인 지난 13일 1.535%였던 금융채 금리는 지난 23일 1.688%로 상승했다. 통상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금리도 따라 내려간다. 하지만 최근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로 너도나도 현금 확보에 나서면서 채권 장기물에 대한 수요가 급감해 채권금리가 올라가는 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

반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은행권 평균 2.55%까지 내려갔다.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하락한 영향이다.

대출금리와 달리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신속하게 내리면서 소비자 불만도 나오고 있다. 예ㆍ적금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이후 0%대까지 떨어졌다. 이날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포함 5대 은행의 12개월 정기예금 금리(단리)는 연 0.98%에 불과하다. 초저금리가 장기화될 경우 은행들은 예금 등 각종 수신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은 금융채 금리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채권시장이 안정화되면 금리가 내려갈 여지가 있다”고 예상했다.

# **KT 임원 80명, 20억원 상당 자사주 11만주 매입**

KT는 구현모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원 80명이 지난달 18일부터 장내 매수 방식으로 총 20억원 상당의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2일 밝혔다.  
  
구 대표와 임원들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주식 시장 변동성이 커졌지만, 최근 KT 주식이 기업가치 대비 과도하게 저평가됐다고 판단했다.

고객 중심 경영으로 회사 가치를

 높여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 아래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윤경근 KT CFO(재무실장)는 "새로운 대표 취임과 5G**·**AI 기반의 산업 환경 변화는 KT가 통신**·**플랫폼시장을 이끌고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이라며 "임원 자사주 매입으로 책임 경영을 강화해 기업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은 4월에 기준금리 동결할까…'진짜' 양적완화는 언제**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지난 3월 16일 개최된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한국은행이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한은이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등 진정한 의미의 양적완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선결 조치로 꼽히는 기준금리 인하가 미뤄진다면 양적완화의 시행 여부도 당분간 불확실한 상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지난 3월 31일 공개한 임시 금통위 의사록에서 향후 정책에 대해 특별한 시사점을 주지 않았다.  
  
비둘기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두 번째로 의견을 개진한 금융통화위원이 "앞으로도 위기국면에서의 통화정책은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한 정도다.  
  
자산운용사의 한 채권 운용역은 "의사록에서 딱히 비둘기적인 입장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4월이 아닌 5월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5월도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기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 환율의 불안이 나타난 점도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달러-원 환율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한 3월 16일 1,211.0원을 나타냈다가 사흘 뒤인 19일 장중 1,296.0원까지 급등했다. 달러-원이 다소 안정을 찾은 시점은 한은이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을 발표한 다음날인 3월 20일부터다.  
  
한은이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면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의미의 진정한 양적완화 조치도 연기된다는 의미가 있다.  
  
현재 시장 일각에서는 한은이 내놓은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이 양적완화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RP 매입이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에 치중했기 때문에 장기금리를 통제하기 어렵고, RP 매입의 대상 채권도 시장에서 처분이 비교적 수월한 채권을 대상으로 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이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불안 증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한은은 이를 RP 매입이나 적격담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무제한 한국형 양적완화는 실제로 무제한도 아니고 양적완화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금융기관의 RP 담보 채권이 무한한지, 장기금리를 통제하는지, 금융기관 자산이 현금화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아니라는 뜻이다.  
  
시장이 생각하는 양적완화는 장기금리를 통제하기 위해 한은이 대규모 국고채 단순매입에 나서는 방식이다. 다만 0.75%인 현재 기준금리를 제로에 근접한 수준으로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국고채 매입으로 금리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은이 실제로 양적완화에 나설 의사가 있다면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가 선제 조치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기준금리가 제로금리 부근인 0.25% 정도까지 도달한 이후 필요하면 국고채 매입으로 갈 것"이라며 "아직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카드가 더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현재 국고채 단순매입 정책은 금리가 특이하게 급등하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국고채를 매입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 "한국판 양적완화?…시장금리 안정 의지 제한적"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등의 거듭된 행보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이 안정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은의 시장금리 안정에 대한 의지가 제한적이어서 시장참가자들이 느끼는 온도차가 크다는 것이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6일 보고서에서 “3월 긴급 금통위를 통한 빅컷(기준금리 50bp 인하), 한국판 양적완화 등 한국은행의 광폭 행보에 더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까지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기준금리 대비 주요 국채 금리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스프레드 수준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당장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정식 출범해 매수 주체로 본격 등장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고,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역시 금통위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기대만큼 채권시장의 투자심리 안정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이전대비 국고 3년, 국고10년 금리 스프레드 전고점은 각각 31.4bp, 59.2bp(2019년 11월12일) 였지만, 현재 국고 3년은 기준금리인하 이후 스프레드 확대가 다소 진정되며 전고점 영역에 근접했지만, 국고 10년은 아직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  
  
그는 “위기 국면에서 한국국채가 안전자산으로서 지위를 의심받고 있다는 점, 완화적 기조에도 불구하고 통화당국의 시중금리 안정에 대한 의지에 대한 선명성이 부족하다는 점, 적극적인 재정확대에 따른 국채 물량 부담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적 양적완화를 선언하면서도 통화당국이 다른 중앙은행들에 비해 시장금리 안정에 대한 의지 확인이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은 양적완화라는 강력한 헤드라인에 비해 실제 시장 참가자들이 느끼는 온도차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꼬집었다.  
  
공 연구원은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겠다는 정책당국 발표에도 불구하고 2차 추경 등 적극적 재정에 대한 언급 그 자체로 채권시장의 수급 우려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한은, '무제한 양적완화' 첫 RP 입찰로 5.25조 공급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시중에 5조 원대 자금을 공급한다.  
  
한은은 오늘 오전 은행과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RP 매입 입찰을 실시한 결과 5조 2500억원이 응찰했다고 밝혔다. 만기는 91일이며, 금리는 기준금리(연 0.75%)와 유사한 연 0.78%다.  
  
이번 결정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일정 금리 수준에서 시장의 자금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주 단위 정례 RP 매입 제도를 3개월간 도입하기로 한데 따른 조치다.  
  
한은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 선언 이후 실시한 첫 입찰이었지만, 금융사들의 요청자금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금융사들이 담보로 맡길 만한 우량 증권을 상당수를 이미 담보로 소진한 상태라 한은에서 추가로 돈을 빌릴 여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RP 매입 모집금리가 기준금리와 비슷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RP 매입금리를 기준금리보다 낮게 책정하면 금융기관의 금리차액거래 수단으로 전용돼 응찰 규모가 필요 이상으로 과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RP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주고 되사는 채권이다. 사실상 채권을 담보를 맡기고 현금을 빌리는 것을 뜻한다. / 이상배 기자

소액으로 시작하는 재테크…업계, '잔돈 재테크' 서비스 연이어 출시

소액의 잔돈만 모아 목돈을 만드는 금융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정해진 시점에 일정금액을 투자하는 방식과 다르게, 소액 자투리 금액을 활용한다.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금융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페이증권은 '동전 모으기' 서비스를 최근 출시했다. 매일 쓰고 남은 동전을 모아 자동으로 투자한다. 쉽고 재미있게 투자 습관을 만들면서 몬돈을 마련한다. 카카오페이로 온·오프라인에서 결제를 하면 1000원 미만으로 남은 동전을 지정 펀드에 자동 투자한다.  
  
카카오뱅크 역시 잔돈을 자동 저축하는 '저금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일 계좌 내 잔돈을 인식, 자동 저축하는 서비스다. 저금통에는 최대 1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P2P 업계에서도 '잔돈 재테크' 서비스를 도입하는 추세다.  
  
데일리펀딩은 지난 3월 1000원 미만 잔돈을 모아 P2P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잔돈분산투자'를 출시했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돈을 활용하는 만큼, 기존 잔돈 재테크 서비스와 유사하다. 데일리펀딩이 잔돈저축 핀테크 업체 티클과 공동 개발했다. 잔돈으로 P2P 상품에 투자하는 서비스는 업계 첫 시도라는 게 데일리펀딩의 설명이다.  
  
이용자가 티클과 연동한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1000원 미만 잔돈이 저축되고 1만원이 모이면 티클 앱 내에서 데일리펀딩상품에 투자하는 구조다.  
  
토스가 지난해 출시한 체크카드 '토스 플레이트'도 잔돈 재테크 서비스를 지원한다. 토스 플레이트 결제 시 1000원 미만 잔돈을 토스 자동저축 계좌에 자동 적립한다.  
  
기존 금융권에서도 잔돈을 활용한 재테크 상품을 선보인 바 있다. IBK기업은행은 'IBK평생설계저금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1만원 미만 잔돈을 결제계좌에서 적금이나 펀드로 자동 이체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에 유례없는 호황 서비스는 무엇?…대중교통·해외여행은↓

코로나19 여파로 대중교통을 피한 자차나 렌터카 이용이 늘면서, 주유앱이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동안 급감했던 내비게이션 앱도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다. 반면 대중교통 이용과 해외여행은 급감했다.  
  
비대면 주유앱 오윈에 따르면 2020년 1월(1.1~1.25) 대비 4월 한달간(4.1~4.25) 1일 평균 주유 건수는 약 3.5배 상승했다. 같은 기간 오윈앱의 1일 평균 주유 결제 금액과 가입자 수도 3배 가까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19로 주유도 비대면 드라이브 스루로 이용하고 싶은 니즈가 반영된 결과다.  
  
드라이브스루 봄나들이객이 늘면서 벚꽃 개화 시즌인 3월 첫 주 이후부터 내비게이션 앱도 점차 회복되고 있는 추세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정점에 달했던 2월 마지막주(2.24~3.1) '네이버 지도, 내비게이션', '티맵(T map)', '카카오내비'앱의 주간 사용자수가 각각 482만명, 387만명, 202만명으로 급감했으나, 4월 들어 최근 주간(4.13~19) 이용자 수가 각각 560만명, 421만명, 230만명선으로 사용자수가 회복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로감이 늘어나면서, 외출을 자제하던 사람들도 자가용을 이용해 봄 나들이를 즐기는 등 변화된 생활이 수치로 증명된 것이다. 5월 첫 주 황금연휴 기간 자차와 렌터카를 이용한 국내 여행 및 나들이족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반면 대중교통 기피와 해외여행 감소 추세도 데이터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뱅크샐러드에 따르면 12월부터 2월까지의 대중교통 이용 거래 유저 수 49.80%, 거래 건수 58.47%, 거래 금액이 52.44% 감소하며 바이러스 감염 우려에 따른 언택트 심리를 반영했다. 사실상 하늘길이 막히면서 여행사의 거래 유저 수와 거래 금액은 각각 72.38%, 88.1%씩 크게 감소했고, 항공사 역시 거래 유저 수와 거래 금액이 각각 61.72%, 59.01% 줄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당장 쓸 돈도 없다…저소득층 저축 줄었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직장인을 포함한 보통사람들은 지난 1년간 저축 총액의 큰 변화가 없었다. 대신 적금이나 청약, 보험의 안정형 금융상품 중심으로 자산이 조정됐다. 소득 하위 40%(1~2구간)는 월 저축이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줄었다.  
  
2일 신한은행이 펴낸 ‘2020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월 저축 대비 투자액은 2018년 대비 1만원 증가한 117만원으로, 매월 저축하는 총액은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상품별 월평균 저축대비 투자 금액을 살펴보면 2018년 대비 적금이나 청약에 4만원 늘어난 48만원, 보험에 1만원 늘어난 39만원을 불입했다. 안정형 금융상품에 저축하는 비중이 70.7%에서 74.3%로 3.6%포인트(p) 늘었다.  
  
반면 펀드, 주식, ELS 등 투자상품에는 2018년 월 저축 총액의 7.8%인 9만원을 저축했지만, 작년에는 6.0%인 7만원만 저축하며 원금 손실 위험을 줄였다.  
  
수시 입출금이나 CMA에는 매월 23만원을 납입하며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가구 소득 하위 40%를 제외한 중산층 이상 가구는 월 저축액이 늘었다.  
  
반면 가구 소득 하위 20%인 1구간은 2018년 대비 2019년 월 저축액이 6만원 감소했고, 2구간은 2018년과 동일했다.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월 저축액 또한 많은데, 가구소득이 가장 많이 증가한 4구간의 저축액이 가장 많이 늘었다. 가구 소득 상위 20%인 5구간은 1구간보다 3.8배 많은 215만원을 저축했다. 이는 4구간의 저축액보다도 84만원 많은 금액이었다.  
  
5구간의 저축액은 2만원 증가하고, 1구간은 6만원 감소하면서 1구간과 5구간의 월 저축액 격차는 2018년 3.4배에서 2019년 3.8배로 더 커졌다.  
  
이 보고서는 신한은행이 전국 만 20∼64세 경제활동자 1만명(95% 신뢰 수준, 오차 범위 ±0.98%p)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 조사를 취합해 작성됐다.

美 성장률 기대이하.."경기회복 U자형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국제금융센터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2020년 1·4분기 미국 실질 GDP 성장률은 -4.8%(전기비연율, 속보치)로 시장 예상치인 -4.0%를 하회했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이 완화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커서 하반기 경제성장은 V자보다는 U자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블름버그 집계 중간값인 -4.0%를 하회하며 2009년 1·4분기 이후 최저수준를 기록했다.  
  
국제금융센터 홍서희 연구원은 "3월 중순부터 이동제한조치가 본격화된 점을 감안할 때 1·4분기 성장률 결과는 코로나19 충격이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올해 상반기 미국 경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사상 최장의 경기 확장기도 종료될 것으로 전망됐다. 3·4분기 이후 V자형 회복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1·4분기 성장률 결과를 감안할 때 2·4분기도 컨센서스인 -35% 이상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5, 6월 경으로 예상되는 반등 시기도 지연되거나 회복 시의 강도도 약화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충격은 부분적으로만 반영됐다는 평가다.  
  
노무라증권은 성장률 대폭 감소에도 실질적인 경기침체가 완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추가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동제한 조치가 3월 중순 이후 본격화됐기 때문에 2분기 침체 폭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1분기 성장률 둔화 폭 완화에 기여한 주거용 투자 및 재고도 2분기에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금융센터는 올해 상반기 미국 경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3·4분기에는 큰 폭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향방이 최대 변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과잉공급에 따른 수익구조 영향이 우려된다. 미국에서 조지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절반 이상의 주는 적어도 5월말까지 록다운을 지속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은 2~3분기에 대폭 위축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이 완화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커서 하반기 경제성장은 V자보다는 U자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보험사 해외투자 규제 숨통 트였다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로 보험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가 50%로 확대돼, 생명보험사 등의 운용자산수익률 개선에 숨이 틜 전망이다. 이미 해외자산 투자 비중이 규제 턱밑(30%)까지 찼던 보험사들은 추가적인 해외투자에 나설 전망이다.  
  
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생보사들의 외화유가증권 규모는 올해 1월 112조5698억원으로 지난해 1월 99조3616억보다 13.3% 증가했다. 한화생명 등 주요 보험사의 올해 1월 기준 해외투자 비중은 이미 전체 운용자산의 20%를 넘었다. 한화생명은 일반계정 운용자산 대비 외화유가증권의 비율이 28.9%로 30%에 육박하고, 푸본현대생명(25.9%), 처브라이프생명(25.3%), 동양생명(23.7%), 교보생명(23.6%), 농협생명(21.4%) 등도 한도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해외투자 한도 확대는 저출산·저성장·저금리 등 3중고에 직면했던 생보사 입장에서는 생존 위기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저금리 여파로 현재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운용자산수익률은 지난 2010년 5.6%에서 2015년 4.0%까지 떨어지더니 지난해 3.5%까지 하락하는 등 역대 최저치를 기록 중이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이 급속한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투자수익률 악화가 예견되는 상황이다.  
  
이에 생보사의 운용자산수익률 개선을 위해 안전성이 높은 해외자산에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1988년부터 2019년까지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은 △국내주식 5.59% △해외주식 10.08% △국내채권 4.74% △해외채권 5.14%로 해외자산이 높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 속에 자산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보험사 입장에서 이번 해외투자 한도 완화는 보험사의 자산 운융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5대은행 '대기업 대출' 두달 새 14조나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대기업 대출 증가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대기업 대출 잔액도 4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자금 조달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대기업조차 돈줄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에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대거 늘려놓은 결과다. 은행들은 대기업 대출 증가에 따른 건전성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28일 기준) 대기업 대출은 88조2537억원(잔액 기준)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5조5515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 2월 이후 두 달 새 13조6464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72조792억원)과 비교하면 넉 달 만에 16조원 이상 불었다. 조선·해운업 위기 여파로 90조원을 돌파한 2016년 1월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다.  
  
금융권은 최근의 대기업 대출 증가세가 유례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5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 규모는 지난해 월평균 70조원대를 유지하며 수천억원에서 줄거나 늘어왔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2월부터 분위기가 급변했다. 대기업 대출 증가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가팔랐다. 2008년 6~12월에 대기업 대출액(기업은행 포함)은 반년 동안 10조원가량 늘어났다. 이번처럼 두 달 연속 급증세를 보인 적은 없었다.  
  
대기업 대출이 급격하게 불어난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앞다퉈 현금 확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대기업 대출은 대부분 한도 대출 방식으로 이뤄진다. 계좌에 한도를 열어놓고 인출한 만큼 대출로 잡히는 마이너스 통장 형태다. 대기업은 한도를 최대 수천억원까지 늘릴 수 있다.  
  
대규모 투자나 프로젝트가 있을 때 돈을 빌리는 ‘건별 대출’도 있지만 최근에는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게 업계의 얘기다. 인건비 등의 고정비를 충당하면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실탄’을 쌓아놓으려는 차원이 크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그동안 회사채 시장에서 더 좋은 금리 조건으로 자금을 자체 조달해 왔다”며 “회사채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마이너스 통장에 손을 벌리는 기업이 늘어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회사채 발행 금리가 예전보다 높아져 직접 조달의 이점이 줄었다”며 “섣불리 수요 예측에 나섰다가 실패하면 기업 신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대기업 대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대기업 대출 규모가 너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중소기업·소호 대출은 5조원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기업 대출 증가폭은 같은 기간 3배를 웃돈다. 대형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기업 대출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요가 많지 않아 올해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며 “산업군별, 기업별 리스크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부실 우려도 제기된다. 대기업 대출은 회사당 규모가 중소기업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부실이 발생하면 곧바로 건전성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기업 한도 대출은 은행이 미리 한도를 열어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며 “경기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를 감안해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염병이 몰고온 불확실성…중요성 커진 건강보험

굳이 코로나19가 가져온 불안감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인생이란 원래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건강보험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1인가구 증가로 전통적 가정에서 책임지던 간병을 기대하기 어렵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중증질환자의 생존기간이 길어져 치료비 부담은 더 커졌다. 교육과 소득 수준이 증가해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대질환에 대한 경제적 준비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공적(公的) 국민건강보험 이외에 사적(私的) 민영 보험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과거 ‘암 발병은 곧 사망’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최근 암 발병률과 함께 생존율이 같이 높아지면서 이런 인식이 조금씩 걷히고 있지만, 여전히 사망원인 1위는 암이다. 의학기술의 발달은 암 환자에게 축복이지만 동시에 치료비가 늘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수술 성공률을 높이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최신 치료 기법들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최근 암 발병 환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것도 치료비 증가의 한 원인이다. 7%대인 20~30대 발병률은 암이 이제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발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암 발병 이후 실직 등에 따른 소득감소도 경제적 고통이 될 수 있다. 이제 암을 막연히 남의 일로만 치부하기보다는 ‘어떻게 잘 준비해서, 어떻게 잘 치료받고, 어떻게 잘 사느냐’를 고민할 때이다.  
  
뇌출혈이나 뇌경색과 같은 뇌혈관 질환도 암과 마찬가지다. 발병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하지만 뇌혈관질환도 장기간 소득 상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데다, 후유 장애로 인한 재활 및 간병 비용도 필요하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질환도 발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조기발견을 하면 치료율이 높아지지만 심혈관질환은 검사 및 치료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다. 새로운 의학기술을 이용한 치료법은 대부분 비급여로 진행되는 데다 심혈관질환의 특성상 한번에 끝나지 않고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재발까지 고려한다면 충분한 진단비와 수술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고혈압, 당뇨 등의 성인병과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도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치매는 장기요양상태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과 가정의 정서적, 경제적 안위마저 위협한다. 역시 건강보험 가입을 고려해 봐야 하는 이유다.

"은행 주도 코로나 극복 대책, 신용도 부정 영향"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은행 주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 방안이 은행의 신용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3일 금융권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향후 2년 동안 은행들의 신용도에 큰 압력을 가할 것"이라면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장기발행자등급(IDR)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피치는 국민은행에 대해 "가계와 자영업자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내 다른 은행보다 크다"고, 신한은행에 대해 "소매와 숙박업, 요식업 등 개인 간 접촉이 필요한 서비스업종에 대한 익스포져(위험노출도)가 시중은행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서영수 키움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피치가 내린 판단의 주요 시사점 중 하나로 "국책은행ㆍ민간은행 주도의 위기극복 대책이 은행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서 수석연구위원은 아울러 ▲(올 1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을 등급 변경의 변수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는 점 ▲1분기 실적에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던 점 ▲실적 개선과 달리 대부분 보통주 자본비율이 하락한 점 등을 언급했다.  
  
피치는 코로나19 사태로 향후 2년 동안 은행의 부실여신비율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고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유예, 소상공인 추가 대출지원, 채권시장안정펀드 출자 등이 등급 조정의 변수라고 지적했다.  
  
서 수석연구위원은 구조조정 지연으로 코로나19 위기에 앞서 이미 한계기업이 증가한 상황에서 원금 뿐 아니라 이자 상환까지 유예해 은행의 여신관리를 어렵게 한 것이 향후 은행의 건전성 관리에 적잖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바젤III의 조기 도입을 통해 BIS 비율을 개선하고 은행의 대출 여력을 높이는 것은 은행의 신뢰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서 수석연구위원은 다만 피치의 IDR 전망 하향 조정이 당장 외국인 투자자의 태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의 충격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등으로 잠재적 불안 요인이 어느정도 해소됐기 때문이다.  
  
서 수석연구위원은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은행의 펀더멘탈 악화가 본격화돼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면 해외 투자자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디스는 최근 한국 은행업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은행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폭락, 유동성 긴축 문제 등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식당이나 접객업소, 교통, 제조업 등 부문에서 대출 부실화의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포스트 코로나 수혜주는…'이것들'만 주목해라

## **[반환점 돈 코로나19 장세 긴급진단]③ '언택트 수혜' IT·'오프라인 개학' 음식료에 주목**

**IT 주도주 장세 이어갈 듯…'언택트' 수혜주인 네이버·엔씨소프트 등 주목**

대부분 전문가들은 주도주인 IT주와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언택트(비대면) 산업의 활성화가 4차산업혁명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된 중국이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도 호재다.  
  
이경민·조승빈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국을 필두로 한 신(新)인프라투자, 신산업 투자 활성화, 언택트 문화로 인한 서버투자 확대 등이 2분기 이후 기대된다"며 "글로벌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투자가 IT분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6~2020년 데이터 센터 수 연평균성장률(CAGR) 30%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올해 말 데이터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은 1조위안(172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중국 중상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산업 인터넷 시장은 올해 6929억위안(약 119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IT주 가운데서도 언택트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수혜는 더욱 클 전망이다. 삼성증권은 구체적으로 [NAVER](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0211441374097#popup) (197,500원 상승500 -0.2%), [엔씨소프트](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0211441374097#popup) (643,000원 상승5000 -0.8%), [삼성에스디에스](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0211441374097#popup) (162,500원 상승4000 2.5%), [더존비즈온](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0211441374097#popup) (87,900원 상승700 0.8%), [스튜디오드래곤](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0211441374097#popup) (76,800원 상승200 -0.3%) 등을 꼽았다. NAVER와 엔씨소프트는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인터넷 및 게임 사용량 증가로, 삼성에스디에스는 클라우드·물류지능화 사업의 수혜가 점쳐진다. 더존비즈온은 재택근무 활성화, 스튜디오드래곤은 콘텐츠 산업 인기에 힘입을 것으로 보인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또한 "게임, 콘텐츠, 화상회의, 금융 등 4차산업 관련 업종을 주목해야 한다"고 권했다.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오프라인 개학 기대에 음식료 업종 기대**

이외 주목할 만한 업종은 헬스케어 등 성장주다. 삼성증권 리서치센터는 "가치주의 성장 전망 훼손이 비교적 커서 성장주의 상대적 매력이 확대됐다"며 "가치주 대비 성장주의 상대성과 우위는 이어지고 있으며, 성장주 밸류에이션(가치평가)에 유리한 초저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성장주란 현재의 이익성장률이 높고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의 주식를 말하며, 기업 이익이나 자산 가치 대비 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된다. 반면, 가치주는 현재의 기업 실적이나 자산 가치에 비해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으로, 주가 변동성이 낮고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수익률을 보인다. 삼성증권은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0211441374097#popup) (581,000원 상승7000 -1.2%) 등을 추천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코로나 여파로 대다수 업종이 이익 전망이 하향된 가운데서도 유틸리티(4.67%)·건강관리(4.38%) 등은 이익 전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지난달 코스피200의 상승률은 5.68%에 그쳤지만, 중형성장주(16.35%)와 대형성장주(6.96%)은 이를 웃도는 오름폭을 보였다. 최재원 키움증권 연구원은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악화되는 구간에서 향후 성장세가 밝은 기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영향"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달부터는 국내 오프라인 개학이 예상되면서 음식료 업종도 주목을 받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8일 시·도 교육감들과 가진 '제12차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회의에서 오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등교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택·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5월에 예상되는 오프라인 개학은 급식·식자재 유통업체들에게 희소식"이라고 평가했다.